

끼워팔기 중단으로 잉여량 증가… M사 쿼터량 감축기로

우유업체별로 우유 끼워 팔기를 중단하면서 원유 적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원유처리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이규태)에 따르면 낙농생산자단체에서 우유 끼워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권유함에 따라 거의 모든 회원사들이 우유 끼워 팔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달 들어 적체되는 원유는 끼워 팔기를 했던 전달에 비해 거의 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유업체들은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가 정체되고 있어 원유 쿼터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한자리수%의 쿼터 감축을 관련농가대표와 협의하고 있다.

M사의 경우 낙농생산자단체의 요청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우유 끼워 팔기를 중단하자 하루 평균 150톤이었던 원유 잉여량은 300톤으로 2배가 증가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M사 집행부는 지난 4월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M사낙농연합회장단 측에 최근 배합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회사에서 원유 쿼터를 5월 1일부터 7%를 감축해야 하는지를 전달했다.

M사낙농연합회 K회장은 “하루 평균 1천400kg이었던 납유량이 5월1일부터 100kg이 줄겠지만 회사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하고 “회사도 조만간 우유수급상황이 좋아지면 삭감했던 쿼터를 환원해주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유소비촉진 TV광고 효과 ‘의문’

낙농자조금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낙농가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우유 소비가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싹 식품이라는 인식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월까지 시유소비

량은 20만3247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등의 여파로 비수기인 점을 감안해 TV광고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활동 등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TV광고는 지난해 12월 계약이 완료된 후 종료됐고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박종수 충남대 교수가 2월 발표한 ‘2006~2007년 낙농자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향후 사업추진방향’ 연구결과에서도 자조금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우유 소비촉진광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광고 호감도가 실제 우유소비량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V 광고를 접한 소비자의 97.3%가 우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56.4%만이 우유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고 가정내 우유소비 확대도 19.8%의 소비자만이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원유가 조정 여론형성 차질

사료가격 급등으로 원유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인 낙농업계가 시와 미산쇠고기라는 복병에 놀려 여론형성에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2월 정기총회에서 5월안에 원유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를 마무리 져야 한다는 농가들의 요구에 여론형성에 열을 올렸던 낙농육우협회는 4월 들어 이례적으로 시가 발병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4월 18일에는 쇠고기 협상타결까지 겹치면서 원유가현실화 목소리가 파묻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난감한 상황.

4월 25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앞두고 24일 이사회를 통해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방향을 잡으려 했던 낙농육우협회의 계획도 24일 당일 한우농가들의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로 여론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특히 농식품부가 쇠고기 협상 이후 후속 대책마

련과 농가 설득에 나서고 있고 A방역, 보상문제, 소비진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도 원유가 현실화 추진에 악재 역할을 하고 있다.

원유가 현실화 협상파트너인 유가공업계 관계자는 “원유가격 현실화에 유업계가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고 전하고 “다만 협의과정을 지켜 볼 때 7월 이후에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낙농가들의 5월 현실화 요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 “현실 모르는 소리”

이명박 대통령의 ‘한우 고급화’ 방안에 대해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충남한우조합장 이두원(45)씨는 “빛, 사료값, 소값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무슨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말이나”며 “정말 농촌 현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한우 60마리를 기르는 축산인인 이씨는 “과거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 들어왔나, 한우가 수입산 쇠고기에 맞서 품질로 경쟁 안 한 적이 있나”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건 전면 개방에 따른 단편적인 피해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제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농 구례농민회 정정섭(45) 회장은 “화우 얘기는 소수 기업농만 살고 다수 소농민은 다 죽으라는 것이냐”며 “이전 정권들은 축산농가를 살리겠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 정권은 강남의 부자들만 생각하며 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다.

경북 의성에서 10년째 소 30마리를 키워온 김상권(40)씨는 개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소값이 또 곤두박질치게 됐다고 걱정했다. 김씨는 “10년 전에 소 한 마리로 시작해 빛 수천만원을 내가며 30마리까지 불려나갔다”며 “시장에 내다팔아야 하는데, 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야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경제가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언제 4만달러가 되고 한 마리에 1억원 하는 소를 먹을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고급화된 한우를 먹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우 고급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이런 즉흥식 제안이 물고올 파장을 이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낙농가 우유 불합격률 98% 급감

올들어 전남지역 낙농가들의 우유 내 항생제 잔류물질로 인한 불합격률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9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우유 내 항생제 잔류물질로 인한 불합격률이 2만 7천815kg에 달했으나, 올해 같은기간에 500kg에 머물러 무려 98%가 줄어들었다.

또 원유 등급별 농가 성적도 2007년 대비 세균수 11%, 체세포수 9% 등으로 1등급 비율이 증가돼 고품질 원유생산에 따른 농가 실질 소득 증대효과를 거뒀다.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한기를 이용, 도내 12개 낙우회를 직접 방문해 192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우유 생산을 순회교육을 실시한 덕택 같다’고 말했다.

순회교육에서는 ▲우유내 항생제 잔류물질 함유에 따른 문제점 및 잔류 예방요령 ▲효과적인 유방염 관리요령 등 기술·정보 제공과 위생적인 원유생산을 위한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6월 나주에서 준공예정인 (주)남양유업과 협약 등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